

SEOUL ECONOMIC BULLETIN

생생리포트

생
생
리
포
트

■ 아시아 대표 첨단 영화 중심지 서울

박대우(서울특별시청 문화융합경제과 과장)

아시아 대표 첨단 영화 중심지 서울

박대우

서울특별시청 문화융합경제과 과장

daewoo10@seoul.go.kr

I. 할리우드 영화 ‘어벤저스2’에 등장한 서울

II. 영화산업 현황

III. 서울 영화문화산업 발전 계획

1. 비전 및 목표

2. 사업내용

IV. 아시아 대표 첨단 영화 중심지 서울

1. 할리우드 영화 ‘어벤져스2’에 등장한 서울

요즘 극장가에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어벤져스-에이지 오브 울트론(이하 어벤져스 2)’ 상영이 한창이다. 이 작품은 약 1년 전 서울에서 촬영을 진행하면서 마포대교, 세빛섬, 상암 DMC, 강남대로 등 서울의 다양한 풍경을 담았다. 정부는 어벤져스2의 한국촬영으로 인한 홍보효과 및 국가브랜드 가치 상승 등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고, 서울시도 교통 통제 및 버스노선 변경, 시민 홍보 등 다양한 촬영 지원을 하였다. 어벤져스2는 개봉 첫날 1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고 개봉 13일 만에 800만 관객을 넘는 등 순조로운 흥행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스크린 독과점 논란과 함께 영화 스토리가 빈약하고 반복되는 액션으로 다소 지루하다는 평가, 당초 예상과 달리 서울 촬영 분량이 적게 등장했다는 의견, 서울 촬영은 할리우드 영화의 현지화 전략을 위한 고도의 마케팅 전략으로 실제 서울의 매력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했다는 등 비판적 의견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 면에서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할리우드 영화가 서울에서 촬영된 사실 자체는 주목할 만한 일이며, 이를 계기로 세계 여러 나라의 영화가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촬영된다면 장기적으로 도시 홍보와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어벤져스2>



<아메리칸 넥스트 탑모델21>



<센스8>

[그림 1] 2014 서울에서 촬영된 해외 작품

영국, 뉴질랜드, 호주 등 세계 각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관광유발 효과를 고려한 대작 영화나 드라마 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다양한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어벤져스2’ 유치를 위해 500억 원에 달하는 영화 세금 공제를 지원했고, 뉴질랜드는 ‘아바타’ 속편 유치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로케이션 유치를 통한 대표적 성공사례는 <반지의 제왕> 촬영지인 뉴질랜드를 꼽을 수 있다.

3편의 시리즈가 개봉하는 동안 뉴질랜드는 ‘가장 가보고 싶은 여행 장소’로 꼽혔고, 실제 영화가 개봉했던 2001년부터 2003년 사이 총 400만명의 관광객이 이 영화 때문에 뉴질랜드를 방문하는 등 관광 파급효과만 38억 달러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 우리나라도 <헬로 스트레인저>라는 태국 영화가 전체 장면의 95% 이상을 서울에서 촬영하였는데, 현지에서 흥행이 성공하면서 서울을 방문한 태국 관광객이 증가하였고, 개봉 후 2개월만에 영화 촬영지를 방문하는 서울투어 패키지 상품을 4,000여 명이 이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예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로케이션 유치를 포함하여 영화산업 전반의 영향력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한국 영화산업도 이제는 국내를 넘어 세계로 진출하는 중이다.

한국 영화산업의 이런 성장에 따라 할리우드 등 해외에서도 서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더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한 때이다.



<여의도 윤중로>



<남산 N타워>



<덕수궁 돌담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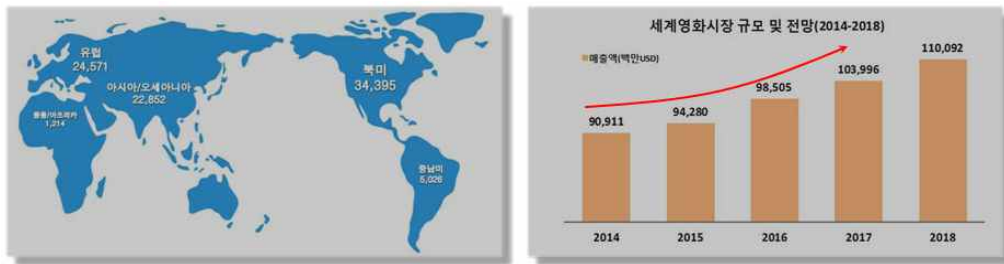
[그림 2] 태국영화 ‘헬로 스트레인저’ 속 서울의 모습

II. 영화산업 현황

1. 세계 영화산업

'13년 세계영화 시장 규모는 약 882억 7,300만 달러(약 95조 원)로 시장규모는 북미권(미국캐나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분야별 영화시장은 박스오피스(43.9%), 홈비디오 판매(29.1%), 디지털 배급(15%), 홈비디오 대여(12.1%) 순으로 비중이 크다.¹⁾

세계 영화산업의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14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 4.5%로 추산 시 '18년에는 1,100억 92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²⁾, 분야별로는 홈비디오 대여 분야는 감소하는 반면, 온라인 및 디지털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3] 세계 영화산업 시장 규모

2. 한국 영화산업

'13년 한국영화 시장 규모는 약 2,967백만 달러로 미국(35.3%), 일본(7.6%), 영국(6.9%), 프랑스(4.3%) 등에 이어 세계 영화시장의 약 3.4%를 차지하고 있다³⁾. 한국영화 산업은 2006년을 정점으로 점점 하락세를 보이던 2011년부터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해, '12년, '13년 2년 연속 한국영화 관람객 1억 명을 돌파하는 등 극장 관객과 매출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3년에는 흥행 10위권 중 무려 9편이 한국영화일 정도로 한국영화가 흥행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산업 생태계의 양극화 심화에 따른

1) 2014, PWC,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14-2018"

2) 2014, PWC,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14-2018"

3) 2014, PWC,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14-2018"

구조적 문제점 노출, 대기업 자본과 연계된 영화의 배급·상영 등 독과점 심화로 흥행 위주의 대작이 증가하는 한편, 10억 원 미만의 저예산 영화가 전체 개봉작의 68.7%를 차지⁴⁾하는 등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중급 규모의 영화 제작은 줄어드는 등 한국영화의 앞날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4] 주요 국가 영화시장 규모 및 한국 영화시장 관객 및 매출액 변화

3. 서울 영화산업

서울은 한국영화산업 매출의 62%, 종사자의 45%가 집중⁵⁾하는 등 명실상부한 한국 영화산업의 중심지로 상영관 등 영화 인프라 및 기획, 제작사 및 전문인력 대부분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연관 산업인 방송, 광고산업과 금융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은 1년에 평균 4.2회의 영화관람을 하는데, 서울시민의 평균 관람횟수는 5.9회로 국내 최대의 영화문화 소비시장을 형성하고 있기도 하다.⁶⁾



[그림 5] 영화산업의 중심 서울

4) 2014년도판 한국영화산업 결산, 영화진흥위원회

5) 2014 콘텐츠산업 통계, 한국콘텐츠진흥원

6) 2014년도판 한국영화산업 결산, 영화진흥위원회

서울의 영화산업은 70~80년대 충무로를 거쳐 90년 이후는 강남이 중심지가 되었으며 현재는 서울시 영화창작공간을 비롯한 한국영상자료원, MBC, CJ엔터테인먼트 등 영화 관련 기관, 방송시설 등이 밀집한 상암동으로 확대·이동하는 추세이다.

한편 서울 역시 대기업 위주의 산업생태계 형성, 제작기반 시설의 부족, 독립예술 영화의 제작·상영 여건 악화 및 관객 감소 등의 문제점과 함께 영화진흥위원회를 비롯한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중앙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른 인프라 확보, 고양, 파주 등 인근 지방 자치단체의 영화관련 기업 적극 유치 등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영화 제작기술을 활용한 영화드라마 제작의 흥행 및 지속적 영화 문화수요 증가, 아시아는 물론 할리우드 등 해외 영화 촬영지로서의 관심 증가 등 서울은 여전히 영화 중심지로서 다양한 발전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런 영화산업의 강점과 기회요인을 더욱 살려 한국을 넘어선 아시아 대표 영화 중심지로 우뚝 서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맞는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 영화 산업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 전문인력, 인프라 집적 • 방송·광고산업과 금융 중심지 • 국내 최대 영화 소비시장 • 안정적인 한국영화 시장 점유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 위주 산업 생태계 형성 • 활용 가능한 제작기반시설 부족 • 독립·예술영화 상영시설 부족 • 타 기관(산업) 간 연계·발전 미흡 • 촬영환경 열악 및 시민의식 미흡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영화제작기술 활용 영화·드라마 제작증가 및 흥행 • 지속적인 영화문화 수요 증가 • 해외영상물 촬영지로서 관심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진흥위원회 부산 이전 • 관련 기업 지역이전(고양, 파주 등) • 국내 지방자치단체 간 과열 경쟁

[그림 6] 서울 영화산업 SWOT 분석

III. 서울 영화문화산업 발전 계획

1. 비전 및 목표



[그림 7] 서울 영화산업 비전 및 목표

2. 주요 사업내용

1) 창조적 영화인프라 조성

한국영화의 상징적 장소인 충무로에 복합 영상문화 공간 ‘서울 시네마테크’를 건립하고 이를 통해 충무로의 전통과 명성을 되살릴 예정이다. 2018년까지 약 5천㎡ 규모로 건립될 예정인 서울 시네마테크는 ‘고전·독립영화 상영관’과 ‘영화박물관’, 영상자료 열람 및 보관을 위한 ‘아카이브’, ‘영상미디어센터’, ‘영화전시관’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약 7천㎡ 규모의 영화제작 전문 ‘실내스튜디오’와 다양한 촬영이 가능한 ‘도심형세



[그림 8] 충무로 시네마테크
건립 예정지

트장'도 조성해 서울을 명실상부한 한류콘텐츠 개발의 핵심기지로 구축할 예정이다. 2018년까지 조성 예정인 '실내스튜디오'는 세트촬영이 가능한 3개의 스튜디오와 관람체험시설로 구성되며 제작스튜디오 기능은 물론 영화감독 마스터클래스 등 영화제작 교육프로그램 운영, 한류 연계 전시·체험시설로도 활용될 계획이다.

2) 독립예술영화 지원 확대

대기업과 상업영화의 스크린 독점으로 상영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독립·고전·예술영화의 제작과 안정적 상영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독립영화 제작·마케팅·상영·배급까지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먼저 독립고전·예술영화전용관에 대한 지원을 2018년까지 3개소로 확대하고, 지난해 6개소에서 진행했던 공공상영회를 올해는 12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상영관 수도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독립영화 제작을 위한 지원책도 정비하여 우수 독립영화는 '제작→마케팅→상영·배급'에 이르는 전 단계에 대한 지원을 펼친다. 또한 서울배경 독립영화 지원 편수도 올해 25편에서 2018년까지 35편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독립영화전용관>



<공공상영회-작품소개>



<공공상영회-CG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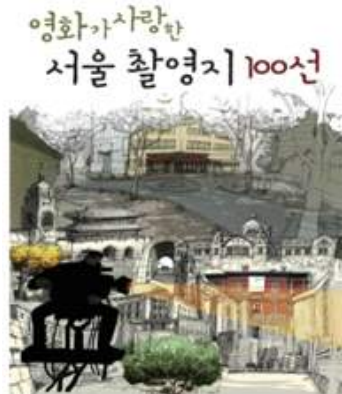
[그림 9] 서울 독립예술영화 지원 확대

3) 촬영하기 좋은 영화도시 서울 조성

국내·외 영화의 서울 촬영을 책임지고 지원하는 전담인력 확보 등 '서울 로케이션 시스템'을 구축해 '촬영하기 좋은 영화도시 서울'을 만든다. 이 시스템은 경찰청, 문화재청 등 주요 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제작사가 촬영현장과 직접 접촉하는 것이 아닌

시 소속 ‘촬영지원 디렉터’가 현장섭외를 총괄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리 시는 이미 지난해 8월에 영화 관련 전공자를 선발해, ‘전문관’으로 임명하는 등 다양한 영상물의 서울촬영 유차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우수 지원 사례 분석을 통해 촬영 지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런던은 시 및 31개 자치구·교통국·경찰청과 민간기업, 330개 이상의 단체가 공동으로 만든 ‘필름 런던’을 중심



[그림 10] 서울 촬영지 소개 책자

으로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해외영상물의 서울촬영 유치 확대를 통한 서울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경제효과를 창출하는 한편, 국내 영상물에 대한 제작지원도 확대하여 서울촬영 비중이 높은 중·소 규모 한국영화에 스태프 인건비, 촬영 장비 대여, 세트장 및 스튜디오 제공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4) 영화산업 창작역량 강화

영화창작 주체인 감독·PD·시나리오 작가 등 창작자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소수의 인지도 있는 사람을 제외한 대다수의 영화창작자는 열악한 여건에서 작품을 개발하고 있는 실정으로, 역량 있는 창작자들의 작품이 제작·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안정적 작업 공간과 창작지원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영화감독·PD·시나리오 작가 및 중·소규모 영화제작사 등 평균 100여 명의 영화 인력이 상주하고 있는 상암동 ‘영화창작공간’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먼저 영화의 ‘기획·개발에서 제작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작품을 지난해 18편에서 2018년까지 30편으로 늘리고 창작활동비(기획·개발비)도 현재 1인 7백만 원에서 1천 5백만 원(‘18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경쟁력 있는 중·저예산 영화와 독립영화 투자 활성화를 위해 500억 원 규모(서울시 200억 원, 민간투자 300억 원)의 ‘영화전문펀드’도 조성할 예정이다. 영화전문펀드는 ‘09년부터 총 974억 원 규모로 운용되던 문화산업펀드가 ‘16년 종료됨에 따라 이후

회수되는 펀드를 활용, 정부·민간 전문투자 등과 연계해 조성할 계획이다.

영화제작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계획이다. 1~3인 내외의 소규모 제작사를 위한 공간을 조성해, 지속·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돕고, 투자 의사가 있는 중소 투자자, 개인·소셜 펀드와 제작자를 연결하는 등 다양한 경로의 투자 유치를 펼친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영상매체를 통해 의견을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마을미디어 사업 활성화’, ‘지역미디어센터 조성’, ‘서울영화문화페스티벌’ 등도 개최해 영화를 매개로 한 주민 간 소통도 지원한다.



영화창작공간(감독PD)

영화창작공간(시나리오 작가)

영화창작공간(제작사) >

[그림 11] 영화산업 창조역량 강화를 위한 영화창작공간

IV. 아시아 대표 첨단 영화 중심지 서울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한다. 해외 선진국들도 문화융성을 외치며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예외일 수 없다. 그동안 한국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IT산업이 2000년대 들어 점차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문화콘텐츠 산업이 주목받게 되었다. 영화는 문화산업의 핵심에 있는 장르로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어, 서울을 한국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첨단 영화 중심지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서울에서 ‘아바타’를 뛰어넘을 블록버스터 영화가 제작되고 서울의 아름다운 골목골목이 ‘미드나잇 인 파리’와 같은 영화 속에서 소개될 날이 멀지 않았다. 가까운 미래에는 박찬욱, 봉준호를 뛰어넘는 세계적인 영화 거장들이 서울에서 탄생하게 될지도 모른다. ‘매일 영화가 촬영되고 상영되는 영화 도시’, ‘아시아 대표 첨단 영화 중심지’ 서울을 만들기 위해 우리 시는 더욱 노력할 것이다.